

## 百年祭를 當하야 「헤겔」과 現代(三)

金桂淑

그러나 「헤겔」의 全體思想의 發端은 客觀的 絕對精神이다. 그 絕對精神은 具體的현상에 까지 發展하며 그것이 辯證法이다. 이것이 「헤겔」의 觀念論的 辯證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헤겔」의 「예나」以後의 卽 實踐性만흔 時代의 것을 볼 때에 거기에서는 具體的 對象과 不可分離의 悟性を 論理的인것의 第一契機라 하얏스며, 哲學에 잇서 서의 不可缺이며 거기에 辯證法이 發足한다는 것을 對校할 때에 「헤겔」의 觀念論的 辯證法の 由來가 明白하게 되는 時間에 그 以後의 方向이 明瞭하게 表示되는 것이다. 卽 그것은 必然的으로 唯物論的 辯證法으로 轉換할 內的 要素를 充分히 內包하얏스며, 「헤겔」自身의 發展理論은 그것의 完成을 暗示하엿던 것이다.

### 【三】

世界大戰 直前부터 「헤겔」에 關心하는 傾向이 勃興하기 始作하야 大戰以後 더욱 最近에 와서는 그 運動이 「헤겔」復興이니 「헤겔」에 接近하자 거니 하게 되었다. 그 原因은 처음에 大略例舉하얏다. 認識論的 問題에 잇서서는 最初에 物理學에서 分離한 形而上學이 다시 그러나 最初의 그것과는 判異한 形態를 가지고 廣汎한 範圍에서 運動의 原則을 是認하면서도 그것은 認識의 根本原則과 그 相互作用을 沒理解하는 關係로 形而上學的 傾向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主觀的 心理 或은 精神의 現象만으로써 모든 것은 卽 自然과 歷史 或은 그 關係까지 說明할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主觀的 體驗을 爲主하며 그것은 窮極까지의 다만 分析으로써 滿足할려는 結果에 不過하다. 이것은 靜的 觀察만을 하며 따라서 哲學的 思惟에 잇서서의 悟性の 主要性 아니 그것의不可缺일것을 알기 못하기 때문이다.

特殊科學의 極度の 發達과 그 專門化는 무슨 結果를 招致하엿는가. 特殊科學과 普通科學과의 사이에는 間隔의 멀어짐을 따라서 다시 그것을 止揚하며 統一할려고 한다. 이와 가티 特殊科學은 그 統一的 原則을 忘却하엿시 때문이다.

에 그것은 盲目이다. 그와 反對로 普通科學은 科學的 素材의 缺乏으로 因하여, 다만 哲學的 思惟를 思惟하게되는 結果로 그것은 空虛가 되며 그 結果는 前者와 가티 形而上學 化하기 되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窮極에 對한것 外에는 아모것도 업스며, 그 結果는 限界概念의 必要를 甯기게 됨에 不過하다. 兩者의 分離의 結果는 如斯함으로써 그것은 統一의 原則을 無視함이며 止揚 統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社會的 現象에서 볼 수 있다. 自由 競爭 時代에는 그 兩者의 分離를 要求하는것이나, 그 分離된 兩者가 産業 統制 時代에 와서는 다시 全體性을 要求하게 되며 그 兩者의 不可分離의 原則이 必要되는 것이다.

以上과 如한 必要로 아니 그 必然性으로 하여 兩者가 止揚統一됨에는 그것은 容易한일이 아니다. 亦是 여러 가지 結果가 생긴다. 萬一 兩者의 內的 關聯의 必然性을 理解하지 못하며 그것을 「헤겔」이 論한바와 가튼 方法 卽 發展의 理論인 辯證法으로 把握하지 아니하면, 獨斷的 不可知論 美化的 神秘論 或은 悲觀的 懷疑主義로 變轉하며 짚아서 不可思議한 迷宮의 迷路로 들어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無理하게 卽 그 必然性을 無視하면서 兩者의 結合을 強力化하려고 하는 狹小 化的 傾向도 그 現象의 一이다.

이러한 것이 總括되어서 今日의 文化科學의 危機가 云云되는 것이다. 그러나 「헤겔」은 歷史性에서 그 眞理를 認識하였으며, 짚아서 部分性을 普遍性의 一部分으로 보았으며 矛盾性의 止揚으로 因하여 分裂對立한것은 統一되며 論理的인것에 잇서 서는 悟性이 第一契機가 된다는 것을 卽 辯證法的 發展을 力說하였으며, 그럼으로써 具體性을 把握하려고 하였다. 이 辯證法은 짚아서 實踐的 把握에서야만 그 本質을 解得할것이며, 그 意味를 正確하게 把握할 것이다—그러나 그 方法은 決코 「헤겔」이 처음으로 發見한것도 아니며 짚아서 「헤겔」의 專用物이 아니다. 그것은 自然 人間 歷史及 그 關係의 具體的 發展이다. 「헤겔」은 또 思索의 亨樂을 말하지 아니 하였으며, 짚아서 「헤겔」의 思想에 다만 耽遊할려는 것이다.